

투르 드 코리아

10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최형민, 도쿄올림픽 도전 다시 힘차게 페달 밟는다

은퇴 미루고 투르 드 코리아 출전



최형민

최형민(29·금산인삼젤로)은 지난해 투르 드 코리아 1~2구간 정상에 오르며 옐로저지를 입고 3구간을 달렸다. 그러나 산악 구간이 많아 승부처로 꼽혔던 3구간에서 뒤처지며 대회 마지막날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최형민은 한국 도로사이클 역사에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다. 2010년 광주아시아 게임에서 한국 사이클 최초로 도로독주에서 금메달을 딴 주인공이다. 지난해 투르 드 코리아가 끝난 뒤 열린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 남자 도로독주에서는 43km 구간을 평균 시속 44.78km로 질주해 57분36초39의 기록으로 4위에 올랐다. 국제무대에서 이름이 높은 금메달리스트 알렉시아 루트센코(카자흐스탄·55분37초13)보다 1분59초가 늦었다.

최형민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사이클 선수 은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위에서 만류가 이어졌다. 도로 사이클은 레이스 운영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을 전성기로 꼽기도 한다. 오랜 고심 끝에 다시 페달에 오른 그는 목표를 2020 도쿄 올림픽으로 정했다.

최형민은 도쿄에서의 질주를 가슴으로 그리며 12일 전북 군산시 은파유원지 투르 드 코리아 2019 출발선에 섰다. 한국 선수로 이 대회에서 우승해 자존심을 지키고 올림픽 출전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싶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다.

최형민은 “아시안게임 무대에서는 좋은 기억이 많지만 돌이켜 보니 올림픽에는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투르 드 코리아는 국제사이클연맹 공인 2.1클래스 대회로 많은 올림픽 출전 포인트가 걸려있다”며 “지난해 실패를 거울삼아 꼭 마지막에 꼭 웃고 싶다”고 다짐했다.

군산 | 이경호 기자

투르 드 코리아 2019 | 크레데르, 1구간 옐로저지 접수



레이몬드 크레데르(팀 유코·오른쪽 앞)가 12일 전북 군산시 은파유원지에서 열린 '투르 드 코리아 2019' 첫 번째 구간에서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한 뒤 양 팔을 번쩍 들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3km 남겨놓고 역전...약속 지킨 크레데르

커브 많은 순환경기 치열한 머리싸움
막판 선두 마트비 제치고 우승 환호
“1구간 꼭 1위” 스스로 한 약속 지키

“스테이지1에서 꼭 우승해 마지막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한 스스로의 약속을 지켰다. 레이몬드 크레데르(30·팀 유코)가 12일 전북 군산시 은파유원지에서 시작된 605.2km의 대장정 ‘투르 드 코리아 2019’ 첫 번째 구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크레데르는 은파유원지 일대에서 펼쳐진 63.3km 구간을 1시간

21분45초에 질주하며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옐로저지의 주인공이 됐다.

국제사이클연맹(UCI) 공인 국제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는 각 구간별 종합 1위에게 옐로저지를 전달한다. 1위는 다음날 경기에서 유일하게 옐로저지를 입고 레이스에 참가하는 영광을 누린다. 최종 시상식에서도 우승자에게 옐로저지를 선물한다.

대회 첫 날 1구간은 순환 경기(크리테리움)로 산악 구간이 없어 스프린터 선수에게 유리했다. 그러나 커브가 많고 도로가 좁아 치열한 머리싸움이 이어졌다.

레이스 후반부터 니키티 마트비(비노 아스타나)가 독주했지만 크레데르는 펠로톤(메인 선두 그룹)에 머무르며 역전 기회를 노렸다. 결승선 3km 정도를 남겨두고 펠로톤에서 마트비를 추격하는 선수들이 동시에 질주를 시작했다. 크레데르는 마트비를 역전한 뒤 치열한 승부 끝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네덜란드 국적인 크레데르는 일본의 팀 유코 소속이다. 투르 드 도치기에서 정상에 오르며 투르 드 코리아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그는 1구간을 1위로 통과했다. 대회 시작 전 “도치기 대회보다 더 우

수한 선수들이 대거 참가했고 코스도 다이내믹한 투르 드 코리아에서 꼭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1구간이 중요하다. 1위로 끝내고 싶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며 정상에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팀 우승은 크레데르가 이끈 팀 유코가 차지했다.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한 유세프 리기(트렝가누)는 스프린트 1위에 주어지는 블루 저지를 받았다.

투르 드 코리아 2019는 13일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동해 단양까지 165.5km를 달리는 2구간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국난극복 의지 되새기길”

스테이지 2 출발지 특별한 의미 부여

“독립기념관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동아일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사이클연맹(UCI) 도로대회 ‘투르 드 코리아 2019’의 두 번째 경유지인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은 12일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인 올해 투르 드 코리아의 라이더들이 독립기념관을 찾은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수들은 12일 전북 군산 은파유원지를 출발해 천안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은 뒤 13일 독립기념관에서 총 605.2km 두 바퀴 대장정의 둘째 날을 시작한다.

이 관장은 “독립기념관도 외부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내부에 비치된 것을 빌려 경내를 돌아보는 자전거 투어가



이준식 관장

가능하다”며 “캠핑장도 리모델링을 마치고 올 4월 재개장해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천안시는 총연장 271.2km의 생활 및 레저형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복면 연춘리~북면사무소~목천 용연저수지~독립기념관의 24.8km 구간은 유독 아름답다.

독립기념관은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 관장은 “2월 28일 정부가 주최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전야제가 열린 것을 비롯해 각종 기념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며 “임시정부 특별전에 이어 광복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념관 측은 올해부터 미주 외에도 유럽에 독립기념관의 재외동포 역사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 관장은 “국난극복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투르 드 코리아 선수들이 에너지를 충전해 마지막까지 무사히 레이스를 마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 | 지명훈 동아일보 기자

mhj@donga.com

주최 : 동아일보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 투르 드 코리아조직위

ACF

대한자전거연맹

SPOT-EX.COM

스폰서 : SHIMANO

GARMIN

THULE

주관 방송사 : CHANNEL A

생활속 치유험토방
자연친화 건강한 삶

국내최초 이동식 구들 향토방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노화예방, 피부미용
동일 뜨끈뜨끈, 여름철은 시원하게

저렴한 연료비, 적은량의 친환경 나무장작, 톱밥, 펠렛
연료만으로 난방비 해결

향토, 숲, 천연
해초석, 맥반석
등으로 바닥과
벽, 친환경 치유형
건강시설
이동식으로 운반,
설치 간편,
속품, 솔잎담,
한증 등 최적공간

평원 자투리 공간, 사찰, 암자, 농막, 전원주택, 힐링타운, 펜션,
캠핑장, 요양원, 경로당 등등...

무주캠핑 농원등에서 향토온돌방 숙박사업
성공적으로 운영 중

다양한 구들시공 일체상담

진주 055-754-0024 합천 010-5555-2560 원주 010-8477-2023
원주 010-3653-1916 무주 010-5127-7599 문경, 고성(준비중)



(주)안병연 구들 명가

상담문의

055-973-4689

전국지역별 대리점 모집중
(판매, 시공일체)